

##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이형실<sup>1)</sup>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Lee, Hyong-Sil<sup>1)</sup>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the association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482 middle school students of Seoul. Statistical methods of correlation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with SPSS WIN 25.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arital conflict had positive influences on aggression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as negatively affected by aggression of adolescents. Marital conflict was found to have negative direc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The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agg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Key words: 공격성(aggression),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청소년(adolescents),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

---

1) 교신저자: Lee, Hyong-Sil, Chung-Ang University, Heugsuk-ro 84, Dongjak-gu, Republic of Korea.  
E-mail: hslee97@hotmail.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므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 적응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다(Bierman, 1994). 학교생활적응에는 학업성취 같은 학업적 적응과 더불어 사회 정서적 적응, 행동적 적응, 그리고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정도 등 다양한 측면의 적응이 포함된다(Kim & Choi, 2009).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은 학교를 중도에 중단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Bryant, Schulenberg, O'Malley, Bachman, & Johnston, 2003). 또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환경에서의 어려움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초기 동안의 부적응적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Brook & Newcomb, 1995).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적응과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가족은 중요한 위안처가 되는데,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모 간 적대 때문에 청소년은 위안처로서의 가족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Mortimer & Call, 2001). 청소년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학교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갈등은 심리적 자원 측면에서 취약성을 야기한다(Buehler, Lange, & Franck, 2007).

부부갈등에의 노출은 자녀의 공격성, 행동 장애, 불안, 우울증상 같은 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uehler et al., 2007). 또한 Coie와 Dodge(1998)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적응과 관련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발달 초기의 지속적인 공격성은 정서조절 부족과 충동적 행동, 학업실패와 중단, 또래문제, 청소년 비행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Tremblay, 2000). 이에,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

부모 간 관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다른 환경에서의 도전에 직면하는 자녀의 기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Davies, Winter, & Cicchetti, 2006).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갖는 가족에 대한 불안정한 표상은 새롭고 도전적인 상황에서의 잠재적 어려움에 민감하게 함으로써 적응 상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Repetti, Robles, & Reynolds, 2011). 이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에 순응하며, 학업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발달적 도전에 직면해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Ladd & Burgess, 1999). 또한 부부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는 환경적 단서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세상을 갈등이 가득 찬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Zimet & Jacob, 2001). 따라서 가족 내에서 부부갈등에 노출됨으로써 부정적 경험을 한 자녀는 가족 이외의 다른 환경인 학교환경에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부부갈등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되는 것이다.

부부갈등은 또한 공격성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Jouriles, Murphy, & O'Leary, 1989). 자녀는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죄의식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부정적인 정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부모는 자녀에게 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역할모델이므로, 부모 간 적대감과 분노를 관찰하는 자녀는 이런 행동을 습득하여 자신의 다른 관계, 즉 또래 관계에서 동일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Stocker & Youngblade, 1999). 또한 이러한 부부갈등의 존재 하에서 성장하는 것은 공격적 행동이 적절하며 허용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Grych & Fincham, 1990).

이와 더불어 공격성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공격성이 높은 경우 공격적인 사회적 단서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하여 적대적 해석을 자주 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반응한다(Dodge, 2000). 공격성은 학교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쳐, 공격적인 청소년은 학교를 덜 지지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보며 교사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Rigby & Slee, 1991). 따라서 학업에의 관여가 적어지고 친구와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경험한다(Graham, Bellmore, & Mize, 2006).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부부갈등과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갈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격성은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련성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는 단 한 편(Kim & Lee, 2017)에 불과하므로 관련 연구가 드문 상황이며, 자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부갈등이 어떻게 자녀의 적응, 특히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개인, 가족 및 학교생활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의 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간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시키고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부부갈등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는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학업적 문제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밝혀져 왔다(Grych & Fincham, 1990). 부부갈등의 불안정성이 자녀가 경험하는 학교에서의 정서적 어려움과 학업관련 어려움을 예측하였다(Sturge-Apple, Davies, Winter, Cummings, & Schermerhorn, 2008). 또한 부부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자녀는 부정적인 대인간 자극을 처리하는데 매우 익숙해서, 학교환경에서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대인간 신호와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Bascoe, Davies, Sturge-Apple, & Cummings, 2009).

초기 청소년의 가족경험이 2년 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uBois, Eitel, & Felner, 199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자녀의 주의집중 어려움을 예측하였고, 이는 학교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Davies, Woitach, Winter, & Cummings, 2008). 반면에, 129명의 2-7세 아동을 2년 후 조사한 연구에서 자녀의 학교와 사회적 적응은 부부갈등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McCoy, George, Cummings, & Davies, 2013).

국내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Cho, 2009; Kwon & Jang, 2019) 보고된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더 심하고 빈번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05).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간 갈등특성과 위협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Kim & Lee, 2017)도 있다.

### 2. 부부갈등과 공격성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을 발달시킨다(Grych & Fincham, 1990). 공격적 행동의 발달은 부부갈등이나 부부폭력에의 노

출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Jouriles et al., 1989). 지속적인 부부갈등 같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성숙되지 못하고 적응적이지 않은 대처 반응에 의존하도록 한다. 이는 자녀에게 공격성이나 위축 같은 행동에의 의존을 결과할 수 있다(Spielberger, 1979). 또한 부모가 갈등 시 적대적, 공격적일 경우 자녀는 공격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Grych & Fincham, 1990), 공격적 행동은 원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전략으로 습득된다(Dodge & Coie, 1987).

8-16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간 파괴적인 갈등 전략과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노출된 자녀는 공격적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Cummings, Goeke-Morey, & Papp, 2004). 7-13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가정에서의 공격성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이는 자녀의 공격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cus, Lindahl, & Malik, 2001).

또한 연구들은 발달 초기의 부부갈등이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장기종단 연구에서 영아기의 부부갈등이 유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tover et al., 2016). 초등학교 3, 4학년を対象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적 아동은 유아기 이전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가족경험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국내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이 심할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Kim, 2001; Noh, 1988) 밝혀졌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강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Kim, & Yoon,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 미해결의 정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위협적이라고 지각하며 자신의 탓이라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공격행동 수준이 높았다(Kim & Lee, 2017).

### 3.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공격성은 낮은 학업성취(Brook & Newcomb,

1995), 낮은 학업적 결과(Loveland, Lounsbury, Welsh, & Buboltz, 2007), 그리고 학업중단(Fergusson & Horwood, 1998)과 관련된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적인 청소년은 많은 학교적응 문제를 경험하며, 학교규칙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학교환경을 적대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관여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et al., 2006). 공격적인 청소년은 학교를 덜 지지적으로 보며 교사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Rigby & Slee, 1991).

미국 고등학생 9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공격성이 학업 성적으로 본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veland et al., 2007). 또한 장기종단 자료 분석에 의하면 2-9세에 어머니가 평가한 신체적 공격성이 9-12세 때의 사회적, 학업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자녀가 낮은 사회적 기술, 외현화문제, 또래 문제를 보였다(Campbell, Spieker, Burchinal, Poe,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6). 6-12세의 공격적인 남아는 공격적이지 않은 남아에 비해 청소년기인 17세 때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았으며(Kokko, Tremblay, Lacourse, Nagin, & Vitaro, 2006),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7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persmidt & Coie, 1990).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하면,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7; You,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Ahn, Son, & Nam, 2014). 반면에 아동의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도 있다(Jang & Yang, 2007).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통하여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이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m과 Lee(2017)의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 중 갈등위협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행동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

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자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이었다. 2014년 9월에 서울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3학년 학생 6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548부의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후 482부(88%)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 232명(48.1%)과 여학생 250명(51.9%)으로 구성되었다.

#### 2. 측정도구

##### (1) 부부갈등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수정한 Seo(2005)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부갈등 척도는 부부갈등 상황과 갈등 상황 이후의 행동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904이었다.

##### (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Seo와 Kwon(2002)의 척도 중 신체

적 공격성을 총 8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공격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840으로 나타났다.

##### (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1993)의 척도를 수정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에는 학교수업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환경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953이었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빈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부갈등과 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부부갈등과 공격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부갈등과 공격성,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는 <Table 1>에 제시된 결과와 같다.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부부갈등과 공격성 간 유의한 정적

Table 1.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marital conflict	2. aggression	3. school adjustment
1	1		
2	.334***	1	
3	-.326***	-.300***	1

\*\*\* $p < .001$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Step		$\beta$	$t$	$p$	$R^2$
1	marital conflict → aggression	.334	7.754	.000	.109
2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326	-7.546	.000	.104
3	aggression → school adjustment	-.215	-4.815	.000	.144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254	-5.670	.000	

상관관계가( $r=.334, p<.001$ ) 있었으며,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r=-.326, p<.001$ )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00, p<.001$ ). 즉, 부부갈등과 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았고 학교생활적응도 낮았다.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부부갈등은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beta=.334, p<.001$ ),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beta=-.326, p<.001$ ). 3단계에서 부부갈등과 공격성을 함께 투입한 결과, 공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beta=.215, p<.001$ ),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그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다( $\beta=-.254, p<.001$ ). 이 결과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5.111, p<.001$ ).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고,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의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과 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공격성 간에 정적 상관관계, 그리고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았고,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 중 갈등위험요인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청소년 공격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Kim과 Lee(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모 간 관계에 대한 내재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 적응 상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부부갈등은 공격성을 통해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결과와 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에 노출되면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부부갈등에의 노출이 공격성 수준을 높이므로,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가족환경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공격성 같은 자녀의 개인적 특성을 통해 학교환경에서의 적응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부부갈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지며,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족과 학교생활에서 모두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적응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될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부부갈등 수준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ummings et al., 2004; Oh et al.,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부갈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와 분노를 발달시키게 된다(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또한 부모가 갈등 시 적대적, 공격적일 경우 자녀는 공격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Grych & Fincham, 1990), 공격적 상호작용을 목격함으

로써 공격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됨(Dodge & Coie, 1987) 따라 공격성이 발달한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이 청소년의 낮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Ahn et al., 2014; Kim & Lee, 2017; You, 2018)와 일치한다. 공격적인 청소년은 학교를 덜 지지적이며 적대적이라고 보며 교사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Graham et al., 2006). 따라서 또래와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관여가 적어지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진다. 또한 낮은 수준의 충동 조절과 주의집중 부족 같은 공격성이 학교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초래한다(Brook & Newcomb, 1995). 더구나 공격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 기술이나 대처방식 같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은 적응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래나 교사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Kim & Chun, 2015). 공격적인 청소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방식이 학교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강화하는 환경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누적적 연속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Brook & Newcomb, 1995).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더 심한 것으로 인식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더 높다고 밝힌 연구결과(Jung, 2005), 그리고 부부갈등은 자녀의 주의집중 어려움 및 학교적응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Davies, Woitach, Winter, & Cummings, 2008)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갈등에의 노출 같은 부정적인 가족 경험은 자녀가 가족 외부의 학교환경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을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Cassidy, Kirsch, Scolton, & Parke, 1996).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갈등적 행동패턴을 발달 시킴으로써 또래관계 같은 다른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므로(Turner & Kopic, 2006), 이는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갈등을 모욕적, 공격

적 행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본 자녀는 공격과 위협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전략으로 보게 되며, 이러한 학습은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학교에서의 불순응 같은 부정적 행동으로 표출된다(Gerard, Krishnakumar, & Buehler, 2006).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부갈등 같은 부정적 경험에 노출될 경우에 나타나며,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갈등 같은 부정적 가족과정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자녀의 발달상 문제를 초래하는 부부관계에 대하여 조기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기 가족의 부부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적응과 가족관계의 향상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방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격성이 높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거부된 청소년이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을 조기에 파악하여 개인적인 심리 정서 문제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다루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개입과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이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교생활적응 문제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와 분노를 해소하고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대인관계의 향상, 더 나아가 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에 노출될 때 어떻게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및 간접 경로를 밝혔다.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

응과 관련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입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에 한정하였으나, 공격성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Ahn, J. Y., Son, Y. E., & Nam, S. I. (2014).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2), 261-28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scoe, S. M., Davies, P. T., Sturge-Apple, M. L., & Cummings, E. M. (2009).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740.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Brook, J. S., & Newcomb, M. D. (1995). Childhood aggression and unconventionality: Impact on later academic achievement, drug use, and workforce involve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4), 393-410.
- Bryant, A. L., Schulenberg, J. E., O'Malley, P. M., Bachman, J. G., & Johnston, L. D. (2003). How academic achievement,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 to the course of substance



- use during adolescence: A 6-year, multiwav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3), 361-397.
- Buehler, C., Lange, G., & Franck, K. L. (2007). Adolescents'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to marital hostility. *Child Development*, 78(3), 775-789.
- Call, K. T., & Mortimer, J. T. (2001). *Arenas of comfort in adolescence: A study of adjustment in contex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mpbell, S. B., Spieker, S., Burchinal, M., Poe, M. D.,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6). Trajectories of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age 9 predict academic and social functioning through age 12.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8), 791-800.
- Cassidy, J., Kirsh, S. J., Scolton, K. L., & Parke, R. D. (1996). Attachment and representations of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92-904.
- Cho, J. H. (2009).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their adjustment in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4), 1274-1282.
- Cummings, E. M., Goeke-Morey, M. C., & Papp, L. M. (2004). Everyday marital conflict and chil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2), 191-202.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es, P. T., Winter, M. A., & Cicchetti, D. (2006). The implications of emotional security theory for understanding and treating childhood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3), 707-735.
- Davies, P. T., Woitach, M. J., Winter, M. A., & Cummings, E. M. (2008). Children's insecure representations of the interparental relationship and their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attention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79(5), 1570-1582.
- Dodge, K. A. (2000). Conduct disorder. In A. J. Sameroff, M. Lewis, & S. M.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447-463). Springer: Boston, MA.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405-414.
- Fergusson, D. M., & Horwood, L. J. (1998). Early conduct problems and later life opportunitie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8), 1097-1108.
- Gerard, J. M.,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youth maladjust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pillover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7), 951-975.
- Graham, S., Bellmore, A. D., & Mize, J. (2006).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their co-occurrence in middle school: Pathways to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49-364.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Jouriles, E. N., Murphy, C. M., & O'Leary, K. D. (1989). Interspousal aggression, marital discord, and child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3), 453-455.
- Jang, S. J., & Yang, H. W.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parents-child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46, 5-29.
- Jung, E. H. (2004). *Relationships of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children, children's aggression, and bullies/victims of peer victim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Songsim, Bucheon, Gyeonggi.
- Jung, M. J. (2005). *Marital conflicts between parents, adolescent's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Songsim, Bucheon, Gyeonggi.
- Kim, H. R., & Choi, S. H.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school-related facto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0, 159-182.
- Kim, J. H., & Lee, S. Y.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0(3), 181-199.
- Kim, S. Y., & Chun, J. S. (2015).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6(4), 193-208.
- Kim, Y. R. (1993).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contribution variables towar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kuk University, Seoul.
- Kwon, Y. S., & Jang, S. H. (2019). The influences of student's dysfunctional family structure, social support, and career though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in middle school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6(1), 61-73.
- Kokko, K., Tremblay, R. E., Lacourse, E., Nagin, D. S., & Vitaro, F. (2006). Trajectories of prosocial behavior and physical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Links to adolescent school dropout and physic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3), 403-428.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350-1362.
- Ladd, G. W., & Burgess, K. B. (1999). Charting the relationship trajectories of aggressive, withdrawn, and aggressive/withdrawn children during early grade school. *Child Development*, 70(4), 910-929.
- Loveland, J. M., Lounsbury, J. W., Welsh, D., & Buboltz, W. C. (2007). The validity of physical aggression in predicting adolescent academic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1), 167-176.
- Marcus, N. E., Lindahl, K. M., & Malik, N. M. (2001).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social cognitions, and child aggression: A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2), 315-333.
- McCoy, K. P., George, M. R., Cummings, E. M., & Davies, P. T. (2013).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marital conflict, parenting, and children's school and social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22(4), 641-662.
- Noh, C. Y. (1988). *The effects of the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Oh, J. A., Kim, E. K., & Yoon, H. M. (2018). Conflict and teacher behavior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bully/victim statu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1, 221-246.
- Repetti, R. L., Robles, T. F., & Reynolds, B. (2011). Allostatic processes in the famil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3), 921-938.
- Rigby, K., & Slee, P. T.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5), 615-627.
- Seo, C. R. (2005).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Seo, S. K., & Kwon, S. M. (2002).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Spielberger, C. D. (1979). *Understanding stress and anxiety*. New York: Harper & Row.
- Stocker, C. M., & Youngblade, L. (1999).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hostility: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4), 598-609.
- Stover, C. S., Zhou, Y., Kiselica, A., Leve, L. D., Neiderhiser, J. M., Shaw, D. S., & Reiss, D. (2016). Marital hostility, hostile parenting, and child aggression: Associations from toddlerhood to school ag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5(3), 235-242.
- Sturge-Apple, M. L., Davies, P. T., Winter, M. A., Cummings, E. M., & Schermerhorn, A. (2008).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explanatory role of children's internal representations of interparen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44(6), 1678-1690.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4), 665-675.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Turner, H. A., & Kopiec, K. (2006). Exposure to interparen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order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2), 131-158.

You, G. J. (2018). Impact of parental emotional abuse on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community conscious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1207-1220.

Zimet, D. M., & Jacob, T. (2001).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adjustment: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4), 319-335.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중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은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될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부부갈등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입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2월 18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3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3월 27일